김해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한다…소통 강화

약 27억원 투입해 근무 환경 개선·권익 증진 박차

자격증·종사자수당 지원…직무 만족도 향상 온 힘

김해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김해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시 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현안 공유 ▲2025년 하반기 추진사업 방향 논의 ▲2026년 처우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의견 수렴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한 위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시와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위원회 활동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는 분들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경험이 김해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갈 중요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시 김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총 2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19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김해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가계보조수당, 명절격려수당) ▲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과 신원(재정)보험 ▲보수교육비 ▲힐링교육 ▲사회복지 종사자의 날 행사 개최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정상진기자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지킨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농기계 사고 등 생활 속 사고 보장

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에서는 농기계 사고·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발생 시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면 되며,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장하는 항목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 목적으로 골절 수술을 받으면 골절수술비 30만원을 보장해준다.

그 외에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대중교통 상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개 물림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연재해사고위로금, 전동보조기 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있다.

특히,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독액성 동물(뱀, 지네, 벌쏘임 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일반 내과 진료 제외)는 질병분류기호 T63.0~63.4에 해당하는 사고여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기타 문의는 재난안전과(860-3424),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로 하면 되며, 보험금청구서 제출은 NH농협손해보험(FAX. 0303-3440-8790)으로 하면 된다. /김감호기자

경남도, 낙동강 수계 총인 처리 박차…녹조 저감 추진

41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참여, 운영비 1억4100여 만원 지원

경남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운영' 사업에 경남 관할 낙동강 수계에 위치하는 총 41개소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T-P) 처리 강화 운영을 실시하고, 총인 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1억4100여 만원을 지원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인(T-P) 처리 강화운영' 사업은 4대강 수계에 위치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인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해 총인 처리 기준을 강화 운영하고, 매년 여름철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인 총인을 저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8개 광역지자체(경남,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충남, 충청, 전남)의 총 123개소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 총인 강화 운영을 실시한다.

이 중 도는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41개소 전 시설이 총인 강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기준으로 경북(42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참여 실적이다.

참여 시설은 **낙동강 수계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조류관찰지점으로 모니터링** 중인 대규모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700t/일)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에 따라 방류수 총인 처리 기준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최근 3년 대비 총인 저감량 2㎏ 이상(21개소) ▲총인 배출농도 저감률 20% 이상(9개소) ▲방류수 수질 기준 대비 10% 미만(11개소)이 있다.

아울러 2024년에는 총 29개소가 참여해 하절기(5~9월) 동안 지난 2015년 대비 총인 배출량을 약 7%(0.32t) 감축 운영했으며, 이에 따른 총인 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1억7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은 "올해는 낙동강 수계 공공하·폐수처리의 전 시설이 참여해 총인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감 목표를 달성해 녹조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소라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서암저수지 부유물 제거…안전한 용수 공급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의령지사는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한 서암저수지의 수질 관리를 위해 저수지 내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암저수지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식수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수원이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잡목, 생활 쓰레기 등 부유물이 저수지로 대거 유입돼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의령지사는 부유물 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더불어 의령지사는 제거된 부유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헌 의령지사장은 "서암저수지는 농민들의 농사에 필수적인 용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식수원이다"며 "이번 작업이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질 관리 활동을 통해 양질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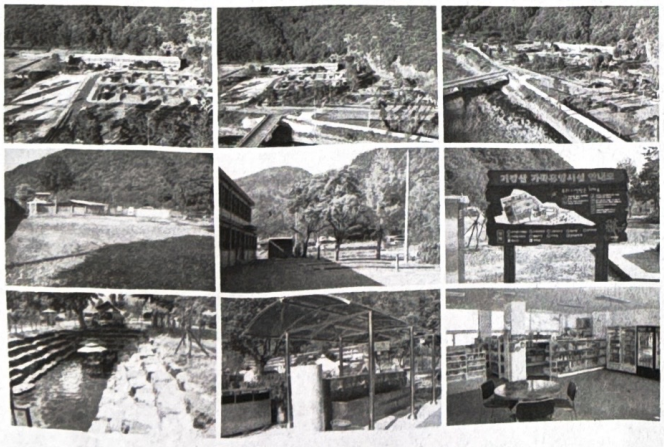
한편, 의령지사는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물론, 태풍 및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http://gjscamping.co.kr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거장산 오토캠핑장

의령 거장산 오토 캠핑장



대표 김 희 용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청정로5길 57 (구, 의동중학교)
TEL.(055) 574-1125 FAX.(055) 574-1126
Mobile. 010-4516-0453
E-mail. zxcvb0453@naver.com

창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률 30% 증가

연말까지 임대료 50% 감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이 지난해 대비 30% 증가(7월 말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현재 의창구 동읍,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해구 웅천동 등 3개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농기계 70종 480대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농기계 임대는 총 2276대로 지난해 대비 30% 증가해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비 절감과 영농효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대 수요가 높은 스피드스프레이어, 농용굴착기, 콩정선기 등 7종 12대의 농기계를 신규 구입해 중소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고 있다.

한편,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고 안전한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시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종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맞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길기자